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4년 3월 18일 -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농촌융복합산업 이해과정 참가자 선착순 모집-6면	제주농업기술센터	뉴제주일보
○ “농촌융복합산업 쉽게 배워요” 오늘부터 교육생 40명 모집-6면	제주농업기술센터	한라일보
○ 제주 농산물 내륙거점 통합물류 ‘성과’ -2면	-	뉴제주일보
○ 비상품 반출 차단... 가격 안정 위한 당근의 반란 ‘성공’ -6면	-	제주매일
○ 저절로 품질이 높아지는 새참비료-15면	-	한라일보

(뉴제주일보: 2024년 3월 18일)

○ 농촌융복합산업 이해과정 참가자 선착순 모집-6면

농촌융복합산업 이해과정 참가자 선착순 모집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문선희, 이하 센터)는 18일부터 ‘농촌융복합산업 이해과정’ 참가자 4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농촌융복합산업 이해교육’은 창업을 준비하거나 농촌융복합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사업 경영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제주 농촌융복합산업 현황 및 전망 ▲농식품가공 창업 절차 및 관련 법령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장 운영 사례 ▲사업장 활성화를 위한 판매전략 및 사회관계망(SNS) 활용법 등이다. 교육은 다음 달 4일부터 오는 5월 3일까지 센터 회의실 및 농촌융복합사업장에서 진행된다.

현대성 기자 can@**뉴제주일보** 6

(한라일보: 2024년 3월 18일)

○ “농촌융복합산업 쉽게 배워요” 오늘부터 교육생 40명 모집-6면

**“농촌융복합산업 쉽게 배워요”
오늘부터 교육생 40명 모집**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는 농촌융복합산업 예비창업자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이해과정’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4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주1회 제주농업기술센터 회의실 및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장에서 진행되며 ▷제주 농촌융복합산업 현황 및 전망 ▷농식품가공 창업절차 및 관련법령 ▷농촌융복합산업 사업계획 세우기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장 운영사례 ▷사업장 활성화를 위한 판매전략·사회관계망(SNS) 활용법 등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신청은 18일 오전 9시부터 40명 모집 완료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전화 (760-7722~3)로 **3.18.** 신청할 수 있다. **한라일보** 6

(뉴제주일보: 2024년 3월 18일)

○ 제주 농산물 내륙거점 통합물류 ‘성과’ -2면

제주 농산물 내륙거점 통합물류 ‘성과’

물류체계 개선, 판로 개척·분산 출하 효과...물가 안정에도 영향

제주산 농산물의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한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 지원사업'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농산물을 도외로 출하하기 위한 해상운송 과정에서 물류비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경기, 영남, 호남 등 3개 권역에 내륙거점센터를 설치해 육상 물류비의 90%를 지원하는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22년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부터 전액 국비로 전국 지자체 중 제주에서 가장 먼저

3.18 뉴제주일보 2년째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 지원사업을 통해 제주산 농산물 1만6370t의 물류비 17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제주 농산물의 전국 권역별 직거래를 유도하고 신선 농산물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물류체계를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해당 사업을 통해 제주산 농산물이 납품된 전국 소비처가 2022년 320곳에서 지난해 694곳으로 무려 117% 증가하는 등 판로 개척 및 분산 출하 효과도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뿐만 아니라 산지 출하 가격 역시 가락시장 출하 대비 9~46% 상승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소비자의 판매 가격은 3~27% 저렴해 소비자 물가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올해에도 지난해 대비 95% 늘어난 국비 18억5000만원을 확보하는 등 총사업비 37억원을 투입해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물류비 절감에 대한 농가 체감도가 높아 통합물류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물류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hh@jejuilbo.net

(제주매일: 2024년 3월 18일)

○ 비상품 반출 차단... 가격 안정 위한 당근의 반란 ‘성공’ -6면

비상품 반출 차단...가격 안정 위한 당근의 반란 ‘성공’

재배 면적 증가 불구 생산자단체-행정당국 노력으로 '호조세' 20kg 상자 당 가격 12월 2만3천원-3월 4만8천원 '2배 상승'

2023년산 당근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급증해 농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됐지만, 생산자단체와 행정당국의 노력으로 가격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2023년산 제주산 당근 재배면적은 전년 848ha 대비 46.8% 증가한 1,245ha로 조사돼, 과잉생산으

3.18 제주매일 6 우려됐다.

실제 23년산 제주당근은 과잉 출하로 인해 지난해 12월 도매시장 경락가격이 손익분기점(2만원 내외/20kg상자)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에 도는 당근 주산단지인 구좌농협에 12억원을 지원해 상품당근 1만t을 가공용으로 전환 출하하도록 했다.

상품당근 가공 지원사업은 상품규격 중 소비자가 선호하지 않는 '왕'과 '중' 규

격의 당근을 가공용으로 출하시 수매가 일부(kg당 120원)를 지원해 수급 안정과 더불어 식품가공업체의 중국산 당근 사용을 대체해 나가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 당근 가격은 지난해 12월 20kg 한 상자 2만3670원에서 3월 4만8352원까지 급상승했다.

이 같은 결과는 (사)제주당근연합회의 노력도 크게 한 몫 했다. 지난해 11월 비상품 당근 유통근절 결의대회를 열었으며, 가공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구좌농협은 당근을 착

즙해 주스로 만들고 있고, 어묵 재료로 납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제주당근연합회는 '비상품 당근은 단 한개도 밭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기조로 생산자들 교육에도 힘써왔고, 밭에서 외부로 반출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까지 펼칠 정도로 강도 높게 관리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앞으로 월동채소 수급 안정 추진 방향은 산지 폐기보다는 가공용 등으로 분산 출하에 초점을 맞춰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병근 기자

(한라일보: 2024년 3월 18일)

○ 저절로 품질이 높아지는 새참비료-15면



현 해 남
제주대 명예교수

저절로 품질이 높아지는 새참비료

옛날에는 하루에 두 끼만 먹었다. 늘 배가 고팠다. 식량 생산이 늘어나면서 100여 년 전부터는 세 끼를 먹었다. 그래도 일을 많이 할 때는 새참을 먹어야 힘이 나서 일의 효율이 높아진다.

감귤나무도 마찬가지이다. 나무가 열매를 맺고 한 참 클 때는 필요한 만큼 양분을 공급해줘야 열매가 잘 크고 품질도 좋아지고 나무도 무리가 없다. 이때 주는 비료가 새참비료^{3.18}.

한라일보 15면

월 후에 웃거름을 준다. 품질 경쟁이 심하지 않을 때는 밑거름, 웃거름만 줘도 큰 문제가 없었다. 밑거름을 주면 처음에는 충분한 양분이 공급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양분이 줄어들고 다시 웃거름을 줘서 양분을 보충한다. 이때 밑거름과 웃거름 사이에 새참비료 주는 요령만 터득하면 품질과 생산량을 높일 수 있다.

새참비료의 원조는 수용성 양액비료, 4종복비이다. 밑거름을 준 후에 양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주로 양분을 공급해주는 것이다. 즉, 작물이 허기지기 전에 밥을 줘서 힘을 돋우는 것과 같다.

고추, 가지, 상추, 참외, 멜론 등은 새참비료 사용 여부에 따라 생산량, 품질, 소득이 몇 배 차이가 난다. 밑거름과 새참비료를 주는 능가(능)는 밑거름, 웃거름만 주는 능가(능)에 비해 2~3배 소득이 높다. 필자는 농

가가 사용하는 비료만 보면 소득이 얼마인지 대충 짐작이 간다.

감귤도 마찬가지이다. 새참비료를 사용하는 농가는 품질만 높일 뿐만 아니라 열과도 줄어든다. 새참비료에 미생물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요령만 알면 금상첨화이다.

서귀포레드향연구회 오병○ 회장은 새참비료로 열과도 줄이고 해거리도 없이 레드향 농사를 짓는다. 몇 년 전에 대한민국과일산업대전 대상 받은 조천읍의 송두○ 농가는 항상 최고 품질의 감귤을 생산한다. 현동○ 농가는 해거리 한번 없이 타이백 농사를 짓는다. 매년 과일 크기가 균질하고 가을에 잎의 탈색도 없고 매년 품질, 생산량이 늘어난다고 한다. 이들은 모두 퇴비차에 만능영양제를 혼합하여 새참비료로 사용한다.

새참비료는 수용성 비료에 미생물

을 혼합하면 효과가 더 커진다. 가장 좋은 새참비료는 비료와 GCM(키틴-젤라틴분해미생물)을 혼합한 방법이다. 퇴비차와 만능영양제, 수용성 비료에 농업기술센터 미생물을 혼합한 새참비료도 매우 효과적이다.

필자는 감귤도, 사과나 배도, 태추단감도, 샤인머스켓도, 멜론, 참외 등도 재배해본 적이 없다. 그런데도 매년 15회 이상 육지에 가서 교육한다. 주요 내용은 새참비료로 토양과 비료를 관리해 품질을 높이는 요령이다.

한 방에 품질 높이는 비료를 귀동냥하는 제주 농가가 많다. 그런 비료는 세상에 없다. 좋은 집은 설계도에 따라 좋은 재료를 잘 써서 실수 없이 세심하게 짓는 것밖에 없다.

감귤이 계속 좋은 품질을 유지하고, 열과 등의 문제점을 줄이고 해거리를 없애려면 새참비료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